

박보경(EBS 아나운서)

# 커피 관참으세요?

- 장맛비가 고즈넉이 내리는 어느 여름날, 향이 진한 커피를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 진한 커피 향처럼 밝은 미소가 시선을 멈추게 하고, 편안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 닳은꼴 연예인 이야기에 호탕한 웃음을 던지고, 소소한 유머에 맞장구 쳐주는...
- 너무나 진솔한 그녀와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 따뜻해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 여러분은 오늘의 한 잔 커피를 누구와 마시고 계신가요?



## 행복 도우미



제일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향기로운 커피.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 다짐하며 자꾸만 모으는 여행책자.  
더욱 더 발전하는 30대를 위해 힘내자는 마음으로 구입한 자동차.



“커피의 맛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비가 고즈넉이 내리는 날에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커피 향이란. 평상시 목을 위해 자제해야 하는데, 그 향과 맛이 항상 저의 발걸음을 커피숍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하루에 한 잔이라는 저만의 규칙은 있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까지 아직은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될 그날을 위해 수많은 여행책자들을 모으고 있죠. 이건 아마도 어디론가 떠나기 전의 설렘을 더 좋아하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졸업과 동시에 방송사에 입사하면서 20대를 너무나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30대를 맞이했고, 더욱 힘내서 달려보자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운전이 서툴러요.”



## EBS NEWS는 열매를 맺고 싶다



“EBS NEWS는 2008년 3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고, 교육과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비중 있게 취재하여 방송하고 있어요. 현재 뉴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10시10분, 저녁 8시30분~8시45분, 하루에 두 번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덧 EBS NEWS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네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뉴스 프로그램이 편성됐는데, 아직도 노력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의 총원으로 심도 있으면서도 다양한 소재의 취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방송시간이 확대 편성돼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EBS NEWS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가 우람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싹을 틔우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 피플 맞춰가기

“EBS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누군가의 마중을 받고,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지요. 오늘도 방송(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가 돼야한다는 필연적인 끌림으로 시작했어요. 입사해서 방송국과 집만을 오가며 뉴스, 라디오 DJ, 프로그램 MC, 내레이션 등 방송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온 일인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저에게 방송은 무한한 집중력을 선사하죠. 내일 그만두라고 해도 아쉽지 않을 최고의 방송을 오늘도 이어가는 거예요. 흑여 방송이 끝나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엄습하지 않도록, 프리랜서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카메라의 빨간 불빛에 눈물샘을 맞추곤 하죠.”



## 아나운서는 정말로 시집 잘 가나요?

“어느 한 초등학생에게 받은 질문이에요. 순간 목격한 철퇴로 머리를 세계 가격당한 듯 정신이 혼미했어요. 이 초등학생은 무슨 글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결혼을 위해 아나운서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쓰다.”

“후배들마저도 아나운서가 되면 무한히 보장된 앞날이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은 있지만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써 자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도 하고, 아나운서의 이름으로 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후배들이 사회를 직시하고 많은 준비로 무장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도심의 새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다가 유리창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몸소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박보경 아나운서

출생 1980년 10월 30일(경상북도 포항)  
소속 EBS  
학력 아주대학교 영문학 학사  
경력 EBS 아나운서  
2003~2006 안동MBC 아나운서  
<http://www.nate.com/cute1945>



## 39.5°C의 사랑

“사랑을 할 때는 심장의 피가 36.5°C가 아니라 3°C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무언지 모를 애뜻함과 안타까움에 심장이 달아오르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노팅힐(1999)의 끝부분에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가 기자회견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indefinitely’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랑에서 사진기 플래시가 터지며 울려 나오는 ‘she’, 감동의 에너지가 울컥 솟구쳐 나오는 그 순간..”



## F + F = Believe

“가족(Family)은 ‘전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항상 믿어 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죠. 할머님이 계신데 ‘우리 보경이 텔레비전에 나왔네’ 하면서 좋아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박보경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Friend)는 다양한 표정을 짓게 해주는 사진사 같아요. 즐거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 등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나의 표정을 자유자재로 바꿔주죠. 우리들의 수다에는 일, 사랑, 결혼, 육아 등 무궁무진한 소재로 수 백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없애기를 반복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상대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죠.”





ㄱ~ㄴ~ㄷ~ㄹ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라.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응, 그럼”(꼬르륵~)  
 “일하기 힘들지?”  
 “아니, 좋아서 하는 일인데...”  
 .....

엄마 말에 힘을 내어 밥상을 차린다.  
 국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하고, 이것저것 밑반찬을 꺼내어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렸다.  
 크게 한술 땀는데 먹기가 싫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싶다.